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35년의 풍부한 경험,
미주 전체 탑 브로커
anna@kstadiumrealty.com

617.780.1675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매사추세츠 중산층은 더이상 옛날의 여유를 즐기는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생활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보스턴 교외의 부촌인 렉싱턴의 거리

매사추세츠 중산층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기 빠듯할 줄이야"

WBUR · MassINC 조사, 응답자 40% “내년 재정 더 나빠질 것”
주거비 · 학비 · 의료비 부담에 매사추세츠 중산층 안정감 흔들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 근교의 집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매사추세츠에서 중산층들의 삶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과거에 누리던 여유와 안정감은 점차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BUR, 커먼웰스 비컨, MassINC 여론조사 그룹이 매사추세츠 주민 8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는 자신의 삶의 질을 “좋다”, “매우 좋다”, 또는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겉으로 보면 매

〈전체 기사 읽기〉

사추세츠는 교육 수준이 높고, 고용과 의료보험 가입률도 높으며, 비교적 부유한 주다.

그러나 속사정은 다르다. 응답자의 42%는 1년 전보다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고, 40%는 1년 뒤 자신의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과 2013년 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1년 뒤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경제적 안정감이 크게 흔들

리고 있는 셈이다.

WBUR과 인터뷰한 마이크 설리번씨(58)의 사연은 이 같은 현실을 잘 보여준다. 28년간 앰트랙에서 일해온 그는 보스턴 사우스 스테이션에서 청소부로 시작해 고속열차 아셀라 정비사까지 올라갔고, 연봉 약 12만 5천 달러를 받으며 사우스쇼어에 본인 소유의 집도 갖고 있다. 전형적인 매사추세츠 중산층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하나의 빛을 다른 빛으로 돌려막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 큰 두 자녀가 여전히 집에 살고 있고, 한명의 대학 등록금을 보태고 있다. 부부의 의료 문제도 겹쳤다. 식료품과 공과금은 계속 오른다. 그는 “1970년대 보스턴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는 우리 네 형제를 가톨릭 사립학교에 보내고 뉴햄프셔에 별장도 마련하셨다. 부유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탄탄한 중산층이었다. 그런데 나는 부모님 세대처럼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 털어놨다.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40%였다. 32%는 노동자 계층, 13%는 상위 중산층, 11%는 빈곤층이라고 답했다. 이 비율은 MassINC가 2003년 처음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중산층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MassINC 여론조사 그룹의 스티브 코첼라 회장은 “중산층 정체성에 일종의 위태로움이 깃들어 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이 꼽은 중산층의 핵심 조건은 정규직 ▶▶12면으로 계속

바이든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의회 후보 지지...대상은 한국계 덴 고

매사추세츠 6지구 연방하원 경선...해리스 · 부티지지에 이은 거물급 인사 합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5월 4일 매사추세츠 6지구 연방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국계 대니얼 애릭 고 후보(40, 덴 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5년 1월 퇴임한 이후 의회 선거 후보를 공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후보 캠프는 6일 이메일과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과 고 후보가 통화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고 후보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투사”라고 평가하며, “그는 훌륭한 연방하원의원이 될 것이고, 그를 지지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또 “행정부에 있을 때 직접 봤다.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

다”며, 고 후보가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에 깊이 마음을 써온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지는 덴 고 정치 여정의 새로운 국면으로 읽힌다. 캐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피트 부티지지지 전 교통부 장관, 마티 월시 전 노동장관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이미 고 후보 지지를 선언했으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지까지 더해지면서 고 후보는 민주당 주류 인사들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후보 중 한

〈전체 기사 읽기〉

명으로 떠올랐다.

이번 6지구 경선에서 고 후보는 초반부터 전국적 지지망과 선거자금 면에서 강세를 보여왔다. 앤도버뉴스에 따르면 고 후보는 수십 명의 선출직 인사, 노동조합, 전국 정치인사들의 지지를 확보했으며, 6지구 경선에서 가장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후보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FEC자료에 따르면 고 ▶▶13면으로 계속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협회, 시빅 참여 인턴십 장학기금 모금 코미디 나이트 연다

재외동포청 지원 중단에 2만5천 달러 모금 목표
한국계 코미디언 헬렌 홍 다시 무대에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미시민협회
(KACL-NE)가 오는 6월 6일 토
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퀸지
(Quincy) 소재 애덤스 인
(Adams Inn)에서 ‘영 리더스
장학스탠드업 코미디 나이트’
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협회가 운영
해온 '시빅 참여 인턴십' 프로
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만찬
으로 행사 **호스트**는 지미 랭 JP
후지 그룹 회장이 맡는다.

올해 행사는 기존의 격식 있는 만찬 형식에서 벗어나 한층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로 준비됐다. 다양한 푸드 벤더와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지난해 무대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한국계 코미디언 헬렌 홍이 다시 한번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 오른다. 석양 바비큐 디너와 유료 바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정식 티켓 판매가 아니라 자율 후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시빅 참여 인턴십은 한국 정부 재외동포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돼 왔으나, 올해부

〈전체 기사 읽기〉

터 해당 지원이 중단되면서 프로그램 지속을 위한 한인사회의 후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민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총 2만 5천 달러를 모금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모금액은 대학생 인턴 2명, 고등학생 인턴 4명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린다 챔피언 시민협회 회장은
“올해 21명의 지원자 가운데 6명
의 인턴이 선발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KACL-NE는 150명
이 넘는 한인 차세대 인재를 양성
해왔다”고 밝혔다.

챔피언 회장은 “한인 2세들이 미국 사회에서 자신감 있게 성장하고 리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우고 더 큰 사회 참여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데 동료 여러분의 후원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후원 등급은 Executive Producer 2천 달러, Director 1천 달러, Comedian 500달러, Star 250달러, Critic 125달러로 마련됐다.



모든 후원자는 행사장과 KACL-NE 소셜 미디어, 관련 매체를 통해 감사인사를 받게 된다.

후원 권장액은 125달러, 250달러, 500달러, 1천 달러이며, 수표는 KACL-NE 앞으로 발행해 PO Box 159, Westborough, MA 01581로 보내면 된다. 벤모를 통한 후원은 행사 포스터의 QR 코드 또는 다음 링크(<https://account.venmo.com/u/kacne>)를 통해 할 수 있다.

행사는 2026년 6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Adams
Inn, 29 Hancock St., Quincy,
MA에서 열린다.

bostonkorean@hotmail.com

**MBTA 그린라인 C 노선 켄모어~클리블랜드서클
6일부터 12일간 운행중단**

열차충돌방지시스템(GLTPS) 설치 작업...E지선도 5월 30일~6월 5일 정부센터-히스 구간 중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매사추세츠교통당국(MBTA)이 5월 한 달 동안 그린라인 C지선과 E지선에서 핵심 안전 시설 설치 작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구간 운행을 중단한다.

그린라인 C지선은 5월 6일 수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12일 간 케모어역과 클리블랜드서클역 사이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

해당 구간에는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다만 세인트 메리 스트리트(Saint Mary's Street), 켄트 스트리트, 브랜든 홀 정거장에는 양방향 모두 셔틀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 이 정거장 이용자는 가장 가까운 다른 정거장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클리블랜드서클, 워싱턴 스퀘어, 쿨리지 코너, 켄모어만 정차하는 급행 셔틀버스도 별도로 운행된다.

같은 기간 D지선에는 추가 운행편이 투입된다. MBTA는 클리블랜드셔클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약 0.1마일(도보 2~3분) 거리에 있는 D지선 레저브와(Reservoir)역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딘 로드(Dean Road) 이용

〈전체 기사 읽기〉

객은비컨스필드(Beaconsfield)역까지
도보 4~5분 거리이므로 D지선으로 갈
아탈 수 있다.

서틀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충분한 추가이동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클리블랜드서클에서 거버먼트센터까지 가는 승객은 평소 통근 시간에 최소 15분을 더해야 한다고 MBTA는 안내했다.

이번 작업의 핵심은 그린라인 열차 충돌방지시스템(Green Line Train Protection System · GLTPS) 인프라 설치다. GLTPS는 차량장비와 선로변 장비를 결합해 열차 간 충돌을 방지하고, 속도 위반을 통제하는 등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는 시스템이다.

자세한 정보와 셔틀버스 정류장 위치는 MBTA 웹사이트 (mbta.com/GreenL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거장 안내문, 역내 안내방송, 현장 안내요원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T-Alerts 구독 또는 X(@MBTA),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k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 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JUNG KWAN JANG

세계
No.1
홍삼브랜드
정관장 정관장은 1969년 설립된 대한홍삼협회 회원사로,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4년 G7 정상회담 기념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관장에서 만든 믿을 수 있는 공진단 정관장 “황진단”

Korean Red Ginseng Powder	1,360 mg
Korean Red Ginseng Extract	80 mg
Phellinus Linteus Extract Powder	120 mg
Deer Antler Extract Powder	120 mg
Korean Angelica Extract	120 mg
Cornus Officinalis Powder	120 mg

정관장 황진단은 홍삼총 상위 2%로 선별된 지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녹용, 참당귀, 산수유, 상황버섯 등 귀한 부원료를 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무더운 여름 지치고 무기력한 몸에 활력을 주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별링턴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

929.600.4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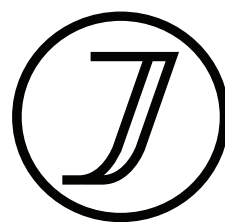
전화주문 서비스

\$150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뉴햄프셔 그린랜드에서 만나는 한국의 여름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코리안페스티벌2026'
6월 13, 14일 개최

〈전체 기사 읽기〉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에서 차로 약 한 시간 거리인 뉴햄프셔 그린랜드에서 한국의 문화와 음식,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가 오는 6월 13일 토요일과 14일 일요일 이틀 동안 'Korean Festival 2026'을 개최한다. 지난해 첫 행사에 300명이 넘는 시코스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올해는 전통놀이, 문화체험, 음식, 공연을 아우르는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는 문화축제에서는 제기차기, 널뛰기, 줄다리기, 공기놀이 등 한국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한복 입어보기, 서예, 종이접기 등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 부스도 운영된다. 떡볶이, 파전, 호떡, 식혜, 짜배기 도넛 등 한식 먹거리도 함께 제공된다.

공연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부채

춤과 난타, 태권도 시연, 행사 곳곳에서 펼쳐지는 색소폰리스트 박광식의 라이브 연주가 행사장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보고, 듣고, 맛보는 방식으로 한국문화의 즐거움을 하루 종일 경험할 수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생활문화의 깊이를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김연수 작가는 웅기 제작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흙이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한지혜 작가는 조선의 미를 대표하는 달항아리의 역사와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 삶의 방식을 소개한다. 단순한 체험 행사를 넘어 한국 전통문화의 결을 느끼고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튿날인 14일 일요일 오후 4시에는 음악회가 열린다.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며 재즈 차트 1위 앨범을 낸 색소폰리스트 박광식과, 안테나뮤직 밴드마스터를 거쳐 일본에서 솔로 앨범 세 장을 발매한 피아니스트 공민이 함께 무대에 오른



다. 두 연주자가 빚어내는 깊고 따뜻한 선율이 6월의 저녁을 채울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인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행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김치, 김밥, 잡채, 떡볶이, 어묵, 짜배기, 불고기, 식혜 등 음식 부스는 교회와 시코스트 지역 한인 가정의 어머니, 이모들이 7개 팀으로 나눠 준비한다. 전통놀이 부스에서는 한국에서 자란 세대가 미국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와 지역 이웃들에게 놀이 방법을 직접 소개한다. 각자 손맛과 친절함으로 미국에 한국을 알리는 '문화사절'이 되는 것이다.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는 이번

행사가 한인들만의 모임에 머물지 않고, 한국 문화를 뉴잉글랜드 지역사회에 알리는 열린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Friends of Korean Festival'이라는 이름으로 후원 사업체도 모집한다. 한식당, 한인마트, 미용실, 교육기관 등 한국과 인연이 있는 사업체는 물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현지 비즈니스도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후원 사업체는 행사장 배너, 안내 책자, 공식 SNS 등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는 "Korean Festival 2026이 뉴잉글랜드 한인들이 한국 문화사절단이 되어 지역사회에 한국을 알리는 기

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 입장은 무료다. 행사가 끝나고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된 윈트워스 호텔을 둘러보는 코스로 잡으면 나들이가 훨씬 풍부해진다. 윈트워스 호텔은 그린랜드에서 차로 20분 거리다.

일시: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월 14일 일요일 오후 4시

장소: Greenland United Methodist Church, 25 Dearborn Rd, Greenland, NH 03840

문의: 603-430-2929, info@greenlandumc.org

한국음식 코너, 공연, 한국문화 소개, 자원봉사, 기업광고 모집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Boston K-Peace Culture Festival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보스톤 K-평화 문화축제

일시: 2026년 5월 9일(토) • 오후 2시 - 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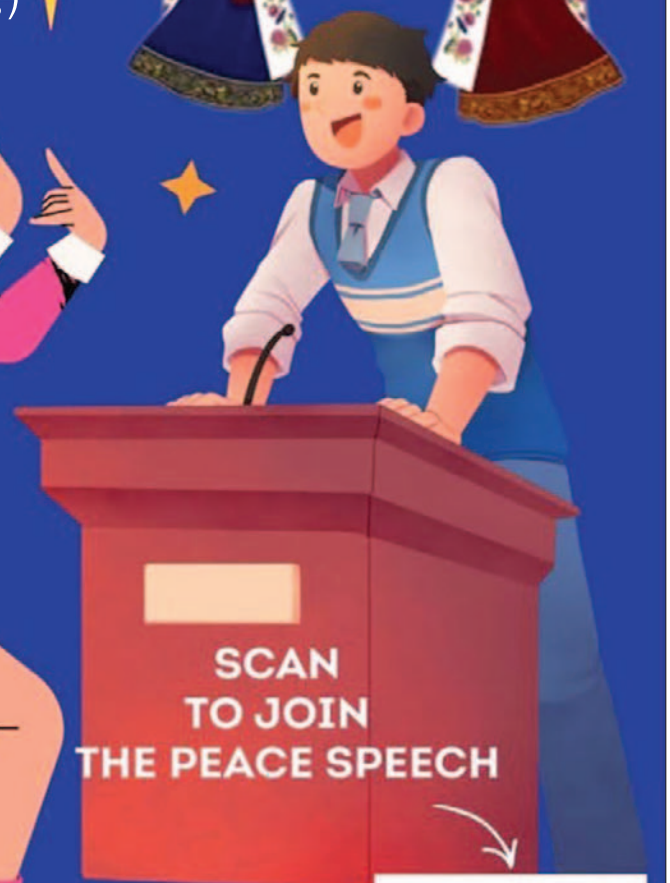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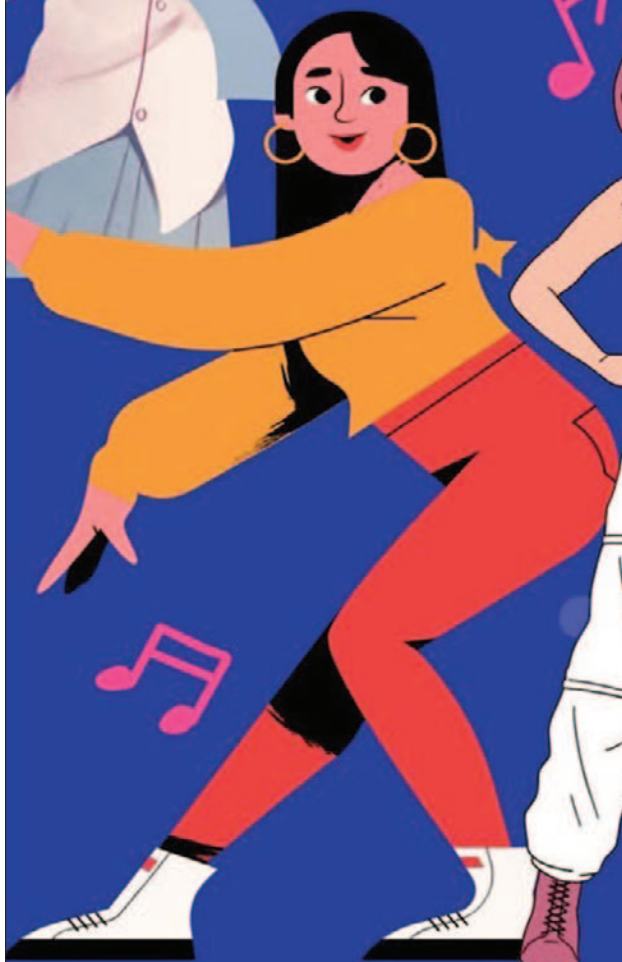
장소: 보스톤 트리니티 교회 앞 코플리 스퀘어(Copley Square)
우천시, 730 Main St. Waltham, MA

주요 프로그램

- 문화공연

Baker School 부채춤/K-Pop 댄스
Northeastern University K-Pop 댄스
Didim Chum Dance Company 태평무
아리랑과 닐리리야 난타 공연

- 한반도 평화 메시지 전시 및 시민 참여 활동
- 청소년 1분 평화 스피치 (모든 학년 참여 가능)



후원 :



주보스톤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oston

주최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하버드 박사과정, 내년에 다시 늘린다... 1년 만의 축소 정책 되돌려

작년 50% 삭감 후 부분 복원... 트럼프 연방기금 동결, 기금세 인상 위기 진정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하버드대 인문과학부(Faculty of Arts and Sciences, FAS)가 지난해 절반 가까이 줄였던 박사과정(Ph.D.) 입학 정원을 내년에는 다시 확대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연구기금 동결과 대학 기금세(endowment tax) 인상이라는 이중 위기 속에 단행됐던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이 1년 만에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모양새다.

하버드크립슨의 보도에 따르면 호피 호엑스트라FAS 학장은 5일 교수 회의에서 "박사과정 입학생을 큰 폭으로 줄였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내년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궤도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증가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각 학과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버드의 급격한 정책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시작됐다. FAS는 지난해 약 3억 6,500만 달러에 달하는 구조적 적자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연구기금 동결, 그리고 새로 인상된 대학기금세(연간 9,800만 달러 부담 추정)가 주된 원인이었다.

호엑스트라 학장은 지난해 가을 과학분야박사입학생을 75% 삭감, 인문·예술 분야 60% 삭감, 사회과학 분야 일부 학과 50~70% 삭감 등 강도 높은 허리띠 졸라매기를 추진했다. 하버드 크립슨 보도에

〈전체 기사 읽기〉

따르면, 그는 한때 박사과정 신입생을 그해 전혀 뽑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이 안에 과학 분야 교수 100명 이상의 서한에 서명하는 등 즉각적인 반발이 일었다. 결정적으로 지난해 10월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기금 동결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연방 자금이 복원되자, 호엑스트라 학장은 11월 19일 삭감 폭을 약 50%로 완화했다.

그러나 갈등은 가라앉지 않았다. 호엑스트라 학장은 박사과정 삭감 안에 강하게 반대했던 제프 리치먼 당시 과학 분야 학장을 올해 1월 해임했다. 박사과정 입학 정책을 둘러싼 FAS 지도부 내부의 충돌이 인사 조치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5일 발표된 이번 박사학위 입학생 증원안은 FAS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버드대는 최근 몇 달 사이 지난해 발표한 여러 긴축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회해왔다. 성과 기반 임금 인상 동결 조치도 해제됐다.

호엑스트라 학장은 또한 대학 전체 채용 동결 조치에도 불구하고 FAS의 세 개 학과(Division of Science, Division of Arts and Humanities, Division of Social Science)와 공학·응용과학부(SEAS) 모두에서 신규 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사과정 정원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기부금 모금 운동도 순항 중이다. 박사과정 펠로우십 기금 1억 달러 모금 목표 가운데, 2월에는 5,000만 달러였던 것이 현재 약 6,600만 달러까지 모였다. 학년도 말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호엑스트라 학장의 전망이다. FAS는 지난 회계연도(FY2025) 하반기에만 2억 2,200만 달러를 모금하며 역사상 손꼽히는 모금 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모든 긴축이 풀린 것은 아

니다. FAS 행정 직원의 직제 통합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직원 해고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사과정 삭감안의 일부였던 비종신트랙 교수예산 25% 감축, 전체 예산 동결, 비필수 자본 프로젝트 지출 중단 등의 조치 중 일부도 여전히 유지된다.

호엑스트라 학장은 회의에서 "이 작업은 힘들었고 희생도 실재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하다. FAS를 건전한 재정 기반 위에 올려놓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2년, 10년이 아닌 앞

으로 400년을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1636년 설립된 하버드대의 오랜 전통을 의식한 발언이다.

하버드대의 박사과정 정원 축소와 부분 복원은 미국 명문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한국 유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과학·공학분야를 중심으로 한 하버드 박사과정은 한국인 유학생 비중이 특히 높은 영역이어서, 입학 경쟁률과 재정 지원 규모의 변화가 향후 몇 년간 유학 경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ditor@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 제 봉

DIRECTOR
781.654.5281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thy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 보 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EJ Kim
617.388.7652
ejkim@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니키 박
617.447.0591
nikkipark@gmail.com



피터 주
617.780.7839
thepeterginteam@gmail.com



지나 최
978.866.3248
thepeterginteam@gmail.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0921@gmail.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정
617.455.7710
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wang1@gmail.com



마샤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손창배
617.913.3369
son@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17.515.1162
mingyou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메건 리
404.641.5102
mega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gmail.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gmail.com



Vivian Yu
617.935.2713
viviany@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2.8979
xiang2022@gmail.com



Lu Jiang
240.449.0117
jiangubox@gmail.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mike@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a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빈센트 박
201.446.8595
vincent@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jakel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Mimi Belanger
413.237.1586
mimi111@hotmail.com



대표 나 원 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주정부 전기자전거 · 스쿠터 규제 법안 제출... 전국 최초 '속도별' 분류

'라이드 세이프 법안' 발의...20마일 이하는 자전거 취급, 20마일 이상 인도 진입 금지, 30마일 이상 자전거도로 진입 금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5월 4일 전기자전거, 전동 스쿠터, 모페드 등 이른바 '마이크로모빌리티' 기기에 대한 안전 규제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주지사실은 이를 "전국 최초의 속도 기반 규제 체계"로 규정했다.

'라이드 세이프 법안(Ride Safe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그동안 페달 보조 전기자전거부터 가솔린 모페드까지 한 묶음으로 분류해온 낡은 규정을 폐기하고, 기기의 최고 속도에 따라 0단계부터 3단계까지 4개 등급으로 새롭게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힐리 주지사는 발표문을 통해 "마이크로모빌리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과 통학,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교통수단이지만 현재 규정은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무모한 운전과 충돌 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보행자와 어린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0단계(0~20mph)에는 일반자전거와 1·2급 전기자전거, 시속 20마일 이하의 전동 스쿠터가 포함된다. 또한 전동 스케이트보드, 일반 스케이트보드, 롤러블레이드, 킥보드, 심지어 외발 자전거까지 모두 이 등급으로 분류된다. 0단계 기기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돼 자전거 전용도로와 잘스강변 산책로 같은 보행자 겸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16세 미만 이

용자에게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다.

1단계(20~30mph)는 모페드와 3급 전기자전거가 해당된다. 이 기기들은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겸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시나 주 정부 기관이 보행자 겸용 도로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 주행은 전면 금지된다. 이용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등록국(RMV)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 대한 헬멧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2단계(30~40mph)는 일부 모페드와 제한적 용도의 모터사이클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이 차량들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새 법안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겸용 도로 통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연령과 헬멧 규정은 1단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3단계(40mph 이상)는 모터사이클과 그 이상 속도가 나오는 모든 기기를 포괄한다.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겸용 도로 통행이 금지되며 동일한 연령·헬멧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법안은 힐리 주지사가 매스 리즈 법(Mass Leads Act)을 통해 구성된 매사추세츠 마이크로모빌리티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고서 공동저자이자 매스DOT(MassDOT) 최고혁신책임자인 크리스 카터는 WBUR과의 인터뷰에서 기기 명칭이 아닌 속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새로운 기기들이 계속 등장할 때



〈전체 기사 읽기〉

것들을 끼워넣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미래에도 적용 가능한 규제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행자 안전 단체인 워크매사추세츠의 브렌든 키어니 사무총장은 "현재는 자동차가 관련되지 않은 사고는 보고 의무가 없다"며 "차량 정의를 현대화하고 사고 보고 공백을 메우는 이 법안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거리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법안은 주의회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힐리 주지사실은 의회 교통위원회 상·하원 위원장, 지역 경찰 지휘부, 시장들, 자전거 옹호 단체들의 지지 성명을 함께 발표해 통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안은 S.3077호로 상원 교통위원회에 회부됐으며, 향후 청문회와 수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계도 지적한다. 키어니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이 위원회의 16개 권고안 중 일부만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동 단속 카메라 도입, 안전한 도로 인프라 예산 확대, 자동차 운전자 책임 강화 등 더 포괄적인 안전 대책은 빠져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세계 청정에너지 20대 기업 중 16개사가 매사추세츠에"

ACT · 시러큐스대 보고서 발표...주지사실 "캘리포니아와 함께 미국 내 최다 거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5월 5일 세계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글로벌 20대 기업 중 16개사가 매사추세츠에 거점을 두고 있다는 새 보고서를 공개하며, 매사추세츠가 글로벌 클라이밋텍(climatech) 경제에서 선두 자리를 굳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16개 기업 중 6곳은 매사추세츠에 혁신센터, 본사, 또는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어 미국 내에서 캘리포니아와 함께 가장 많은 거점을 보유한 주(州)에 올랐다.

이번 발표는 매사추세츠가 보스턴에서 연례 클라이마텍(ClimaTech)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시기에 맞춰 이루어졌다. 콘퍼런스는 글로벌 리더, 혁신가, 투자자, 정책 입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 솔루션과 경제 성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보고서는 보스턴 소재 무역협회인 '기후 전환을 위한 연합(ACT)'이 시러큐스대학교 다이내믹 서스테이너빌리티 랩과 공동으로 펴낸 것으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기업들을 식별하고 비교 평가한 첫 종합 보고서로 평가된다. 재생에너지, 전력망 현대화, 친환경 운송, 에너지 저장, 산업 탈탄소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기업들이 포함됐다.

매사추세츠에 거점을 두고 있지 않은 4개사는 중국의 CATL, 중국 자동차업체 BYD(10위), 미국의 퍼스트솔라(First Solar · 9위), 그리고 독일 에너지 기업 E.ON(18위)으로 알려졌다.

〈전체 기사 읽기〉 매사추세츠에 거점을 둔 16개 기업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알스톰(Alstom), ABB, BYD, 이튼(Eaton), 에머슨 일렉트릭(Emerson Electric), GE 베르노바(GE Vernova), 히타치(Hitachi), 이베르드롤라(Iberdrola), 존슨 컨트롤스(Johnson Controls), LG에너지솔루션, 미쓰비시 일렉트릭(Mitsubishi Electric), 리비안(Rivian), 생고뱅(Saint-Gobain),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지멘스 에너지(Siemens Energy), 테슬라(Tesla), 베스타스(Vestas).

필립 부사장은 슈나이더 일렉트릭(7위)이 10여 년 전 미국 본사를 일리노이에서 매사추세츠로 옮긴 것을 사례로 들며, 이 보고서가 매사추세츠를 "세계에서 이의 없이 클라이밋텍 혁신의 1번지"로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밝혔다.

힐리-드리스콜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용 절감, 에너지 자립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왔다. 청정에너지 보급 가속화, 인력 양성 투자, 차세대 클라이밋텍 기업 지원 프로그램, 인프라 투자, 경제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 저자들은 매사추세츠의 성공을 이끈 동력으로 힐리 주지사의 클라이밋텍 이니셔티브와 이를 뒷받침하는 매스 리즈 법(Mass Leads Act)을 꼽았다. 이 법은 매사추세츠가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생명과학 이니셔티브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주일 미사 Lord's Day 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Weekday Ma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Contact 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보스톤 새소망 글로벌감리교회
BOSTON NEW HOPE GLOBAL METHODIST CHURCH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주일 예배 : 오후 2:30
장소 : 45 Woburn St. Reading, MA 01867
새벽 기도회 : 화-토 오전 6시 (ZOOM)
수요성경공부 : 오후 8시 (ZOOM)
지역선교 : 행복 시니어 학교 매월 넷째 주
(문의 : 김지영 권사. 603.674.3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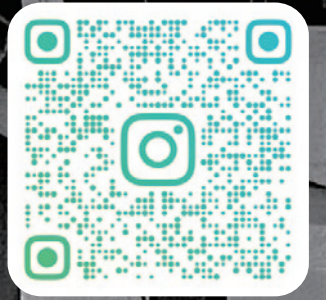
진남조 목사 : 201.667.9777
namjojin@gmail.com

www.bnhkgmc.org



웹사이트 유튜브 수요성경공부 새벽기도회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www.premierworkspro.com

보스턴 호텔, 월드컵 특수 '비상'... "평소 여름보다도 예약 저조"

미 호텔숙박협회 보고서 "보스턴은 사실상 '먹을 것 없는 잔치'"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보스턴을 비롯한 2026 FIFA 월드컵 미국 개최 도시들의 호텔 업계가 개막을 6주여 앞두고 비상에 걸렸다. 당초 기대했던 예약 실적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보스턴의 경우 평소 여름철보다도 예약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국 호텔숙박협회(American Hotel and Lodging Association·AHLA)는 5월 4일 발표한 '2026 FIFA 월드컵 호텔 전망 보고서'에서 11개 미국 개최 도시 호텔 운영자의 약 80%가 예약 추세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전역에서 다수의 호텔을 운영·소유하는 사업자 등 20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진행됐다.

특히 보스턴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시애틀과 함께 가장 타격이 큰 도시로 꼽혔다. 보고서는 이들 4개 도시의 응답자 약 80%가 예약 추세가 기대치는 물론 평소 여름보다도 부진하며, 운영자 다수가 월드컵을 사실상 '실망스런 행사'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AHLA는 FIFA의 대규모 객실 블록 취소와 외국인 팬들의 미진한 방문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더욱이 한 매체에 따르면 일부 호텔의 경우 토너먼트 개막 불과 3개월 전에 전체 예약이 한 명의 손님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반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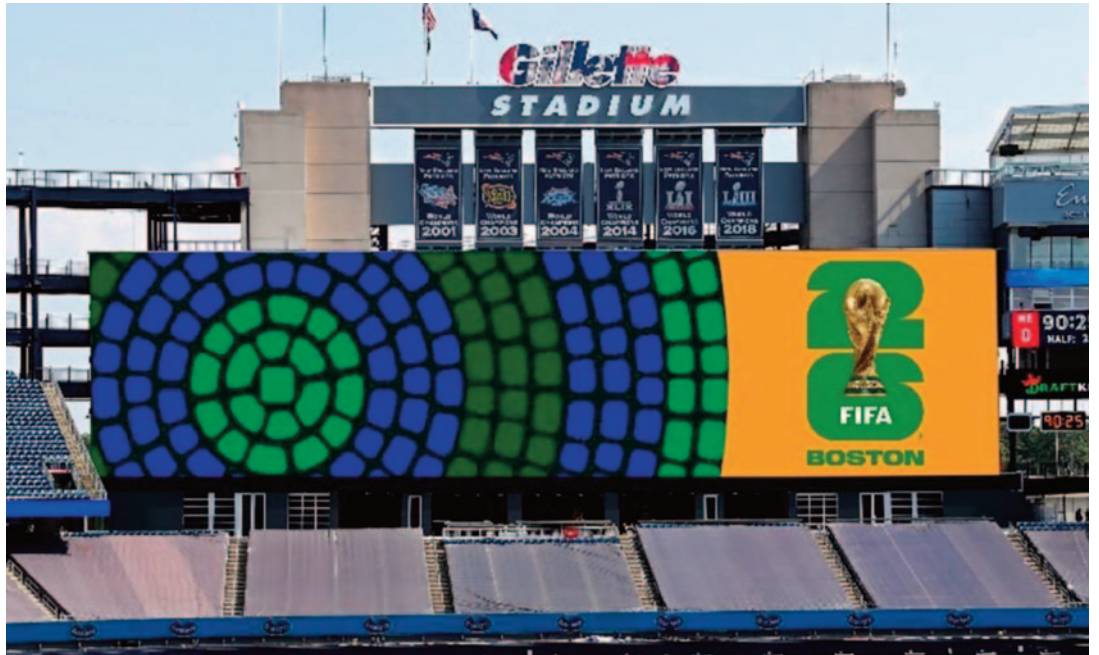
〈전체 기사 읽기〉

는 사태도 벌어졌다. FIFA 측은 모든 객실 반환이 계약된 일정 안에서 이뤄졌으며 호텔 파트너와의 사소통도 일관되게 유지됐다고 반박했다.

월드컵 입장권은 이미 500만 장 넘게 판매됐지만 이런 수요가 호텔 예약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AHLA의 분석이다. 호텔 업계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월드컵과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이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기대해왔다. 외국인 관광객은 체류 기간이 길고 지출도 많아 호텔업계에 특히 중요한 고객층이다.

그러나 응답자의 65~70%는 비자 장벽과 광범위한 지정학적 우려가 외국인 관광 수요를 크게 억누르고 있다고 답했다. AHLA는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많은 월드컵 여행객들에게 미국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환영받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느껴진다"며 "비자 발급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비자 수수료가 인상됐으며, 입국 심사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강(強)달러 환율과 공항 보안 검색에 대한 우려도 미국 방문을 더 복잡하고 비싸게 만든다는 인식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정



책과 이란전쟁으로 인한 항공 연료 가격 상승도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별로 보면 캔자스시티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응답자의 85~90%가 예약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으며 큰 행사가 없는 일반적 6~7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 달라스와 휴스턴은 약 70%가 월드컵 기대치를 밑돈다고 응답했지만, 통상적인 6~7월 수준은 유지하고 있어 토너먼트로 인한 추가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뉴욕시는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예약이 기대치보다는 부진하지만 평소 여름 수요와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로스앤젤레스 역시 65~70%의 응답자가 예약 추세가 기대치 이하라고 보고했다.

반면 마이애미와 애틀랜타는 비

교적 호조를 보이고 있다. 두 도시 모두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예약이 기대치와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하며 평소 6~7월 수준보다도 앞서고 있다고 답했다. 애틀랜타는 출전국 베이스캠프 유치와 우수한 항공 연결망, 다양한 수요원 덕분에, 마이애미는 월드컵과 연계된 레저 수요로 외국인 여행 수요 부진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일부 도시에서는 월드컵을 겨냥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빈출을 사고 있다. 뉴저지 트랜짓이 메트라이프 스타디움 경기일에 왕복 150달러(평상시 12.90달러)의 철도 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FIFA가 직접 관중 동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슷한 할증 요금이 로스앤젤레스와 보스턴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암울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AHLA는 호텔 업계 시장조사기관 코스타(CoStar)의 분석을 인용해, 토너먼트 기간 미국 전체 객실당 평균 매출이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월드컵이 없는 경우(0.2% 증가)와 비교하면 의미 있는 성장이다.

FIFA는 토너먼트에 대한 "전례 없는" 수요를 강조하며 관중 동원 신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백악관 데이비스 잉글 대변인도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월드컵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멋진 이벤트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팬과 방문객에게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역대 가장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한 대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2026년도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2026 NE DRAWING CONTEST



일시 및 장소: 2026년 5월 23일(토) 오후 2시부터 오크힐 파크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오후 2시 (접수) ~ 5시 30분 (시상식 포함)
- 신청 및 마감: **5월 17일 (일) 마감**
- 참가비/1인: \$10 (회원 한국학교 학생)/등록 마감 후: \$15
- 참가비 보내실 주소:
참가비는 각 학교 대표자가 참가비 총액을 아래의 주소로 발송
(수표는 KSA-NE 로 작성)

Sang Kang

P.O. Box 337

Billerica, MA 01821



<https://forms.gle/ZnE3Wya5Ti2mzkzC8>

<1> 참가자격: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재학생 (Pre-Kinder~11학년)

<2> 참가부문: 크레용, 색연필, 그림물감 등 자유롭게 선택
(유화 제외/콜라주 제외 - 풀, 가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입체 작품제출 불가)

<3> 시상 및 심사위원: Pre Kinder부터 11학년까지의 학년 별 시상

- 1.Pre-Kinder는 참가자 전원 시상
- 2.K-11학년: 각 그룹 별로 대상, 금, 은, 동, 입선상
- 3.감독/심사 위원: 미술 전공한 분으로 회원교에서 추천한 교사
- 4.그림 주제는 당일 선택하여 알림

<4> 준비물 및 협조 부탁 (물감, 크레용 사용이 가능한 종이는 협의회에서 준비)

- 1.물감, 크레용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모든 재료를 준비 합니다.
- 2.야외에서 진행시 보드 또는 이젤 및 돛자리(또는 의자)가 필요합니다.

<5> 각 학생/가족 별로 준비할 사항

: 기본 구급용품과 선크림·모자·모기약을 준비하고, 공원에서는 취사(그릴·불 사용)가 금지되므로, 간식은 각 가정에서 준비하며 쓰레기는 행사 후 직접 수거합니다.

<6> 행사 당일 또는 전날 비가 많이 오거나, 더위가 심한 경우 학교 내부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가 신청자에 한해, 신청 시 기재하신 이메일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 2:00-2:30 접수
- 2:30-3:00 개회식 및 주제 선정
- 3:00-3:10 대회장소 이동
- 3:10-4:10 대회
- 4:10-4:40 심사
- 4:40-5:30 시상식 및 폐회



주최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후원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교장단 및 이사회

보스톤 **코리아**



매사추세츠 중산층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기 빠듯할 줄이야"

▶▶ 1면에 이어서

일자리, 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 편안한 거주 공간, 주택 소유 등이었다. 정작 미래 저축, 휴가, 자녀 대학 학비처럼 한 세대 전 중산층이라면 당연히 누렸던 것들은 순위 아래로 밀려났다. 지금의 중산층은 “각종 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조금이라도 남는가”를 신경쓰고 있다.

실제로 응답자의 절반은 주거비가 감당하기 버겁다고 답했다. 35세에서 44세 사이에서는 그 비율이 3분의 2까지 올라갔다. 고등교육비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48%, 세금은 46%였다. 의료비, 자동차 소유, 외식이나 영화 관람 같은 일상적 여가도 많은 가구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

주거비는 큰 압박 요인이다. 응답자의 41%는 재정 상황 때문에 집을 사지 못했거나 미뤘다고 답했다. 임차 거주자 가운데 상당수는 향후 5년 안에 집을 살 계획이 없거나, 집을 사더라도 매사추세츠 밖에 살 수 있다고 답했다.

매사추세츠는 2035년까지 22만 2천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그레이터 보

스턴은 단독주택 가격 기준 미국에서 세 번째로 비싼 대도시권이다. 높은 소득이 높은 주거비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머빌에 사는 프리랜서 금융 칼럼니스트 알렉스 카르키디 씨의 사례는 매사추세츠 주거 시장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그는 연 20만 달러 이상을 벌지만 학자금 대출 3만 6,000달러가 남아 있고, 부부가 함께 살 집을 찾아 6년 넘게 헤매고 있다. “현금 매수자들이 빼앗아가듯 매물을 채간다”고 그는 말했다.

보스턴 재단 산하 연구센터 보스턴 인디케이터스(Boston Indicators)의 록 슈스터 사무국장은 “주택 부담을 소득과 가격의 경주로 보면 이해가 쉽다. 매사추세츠 평균 소득은 꽤 높고 계속 오르지만, 주택 가격이 수년째 그 경주에서 이기고 있다”며 “월급이 오를 때마다 주거비가 점심을 먹어치우는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세대간 발전 기대도 약해지고 있다. 응답자의 32%는 자신이 부모 세대보다 재정적으로 더 낫다고 답했지만, 33%는 더 나쁘다고 답했다

. 2011년에는 절반이 부모보다 더 낫다고 답했고, 더 나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자녀 세대에 대한 전망은 더 어둡다. 응답자의 44%는 자신의 자녀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 것이라고 답했고, 더 잘 살 것이라는 응답은 22%에 머물렀다. 열심히 일하면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미국식 중산층 신화가 매사추세츠에서도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다.

푸에르토리코에서 가난하게 자란 프리실라 리베라 씨는 미국 본토로 건너오며 중산층의 꿈을 쫓았다. 대학 졸업장도 땀, 부부가 함께 술집도 운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게 문을 닫았고, 지금은 그래픽 디자이너와 노인 돌봄 일을 함께 하고 있다. 그는 “한때는 나도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제적 불안은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는다. 조사에서 연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버는 1인 소득 가구도 “간신히 충분하다”고 답했고, 연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를 버는 밀레니얼 남성도 “중산층

에서 떨어질 위험을 느낀다”고 말했다.

터프츠대 정책분석센터의 에반 호로위츠 소장은 “경제가 점점 더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이 있고 청구서를 낼 수 있지만, 지난해만큼 확신이 없다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53%는 재정 상황에 은퇴 저축을 하지 못했거나 미뤘다고 답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는 여행이나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저축”을 꼽았다. 중산층의 꿈이 사치가 아니라 비상금이 된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주정부가 누구를 더 우선시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냉소적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은 매사추세츠가 부유층에게는 다른 주보다 살기 좋은 곳이라고 봤다. 반면 중산층, 노동자 계층, 빈곤층에게는 더 나쁜 주라고 보는 응답이 많았다. 주정부가 현재 부유층을 우선한다고 답한 비율은 25%였지만, 중산층을 우선한다고

답한 비율은 9%에 그쳤다. 반면 72%는 주정부가 노동자 계층과 빈곤층의 필요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인 이민자 사회에도 이 조사는 낯설지 않다. 매사추세츠의 좋은 교육, 우수한 의료 시스템, 안정적인 직장은 여전히 한인 가정을 이 지역에 머물게 하는 힘이다. 그러나 자녀 대학 학비, 의료비, 주택 마련 부담은 점점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30년에서 40년 전 보스턴에 정착한 한인 1세대가 가졌던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사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다”는 확신은 지금 세대에게 훨씬 더 좁은 문이 되고 있다.

그래도 완전한 비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빠르지 않지만 최소한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공존한다. 카르키디 씨는 아르헨티나 출신 아내의 말을 전하며 “그곳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매사추세츠에서는 여전히 노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2026년도 장학생 모집

내일을 이끌 미래의 주역들을 찾습니다

선발대상 한국인 유학생, 한국계 미국인, 1.5세, 2세 및 입양자로서
학업성적과 리더십이 출중하고 한국 전통 유산을 존중하는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고교 11·12학년 학생
*뉴잉글랜드 거주자

장학금액 \$2000-3000

지원방법 온라인 제출 (신청 양식: www.snuaane.org)

마감일자 5월20일

For detailed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ms,
please visit our website: www.snuaane.org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바이든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의회 후보 지지...대상은 한국계 덴 고

▶▶1면에 이어서

후보 캠프는 현재 35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해 매사추세츠 연방하원 후보로서는 역대 최고 기록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출마자 중에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2위 존 베치아의 240여만 달러 모금에 100만달러 이상 앞서고 있다.

고 후보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에 대해 “엄청난 영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우리가 노동자 가정을 위해 이뤄낸 진전이 모두 공격받고 있다. 나는 맞서 싸우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출마했다. 렛츠 고” 라고 밝혔다.

고 후보는 자신의 한국 성씨인 ‘고’를 활용한 ‘렛츠 고’를 캠페인 구호로 내세우고 있다. 영어권 유권자들에게는 선거 구호로 들리지만, 한인사회에는 후보의 한국계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이중적 메시지로 읽힌다. 고 후보가 2017년 처음 연방하원 출마를 검토하던 때부터 사용해온 문구로, 이번 선거에서도 그의 대표적인 캠페인 구호로 자리 잡고 있다.

고 후보는 한인사회와 깊은 인연을 가진 한국계 미국 정치인이다. 부친 하워드 고 박사는 매사추세츠 보건국장과 오바마 행정부 보건복지부 차관보를 지냈으며, 현재 하버드 공

중보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삼촌 해럴드 고 박사는 예일대 로스쿨 학장과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법률고문을 역임했다. 친조부 고광립은 1960년 한국의 주미대사 직무대행을 지냈다. 모친 클로디아 애릭은 레바논계 안과 의사다.

2018년 고 후보는 매사추세츠 3지구 연방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로리 트래헨 후보에게 불과 145표 차로 패배한 뒤, 재개표 결과를 받아들였다. 당시 고 후보는 “이번 도전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재도전 가능성을 남겼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고 후보는 다시 연방하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번에는 3지구가 아니라 매사추세츠 6지구다. 세스 몰튼현역 의원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에드 마키 연방상원의원에게 도전하기 위해 하원 의석을 비우면서, 6지구는 민주당 내 오픈 시트 경선 지역이 됐다. 보스턴 코리아는 지난해 10월 고 후보가 몰튼 의원의 상원 출마 선언 직후 가장 먼저 6지구 출마를 공식화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사추세츠 앤도버에서 자란 고 후보는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 하버드대 학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보스턴 시청에서는 마티

월시 전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했으며, 2018년 연방하원 첫 도전 이후 앤도버 셀렉트보드 위원으로 선출됐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해 노동부 비서실장, 백악관 특별보좌관 및 부내각비서관 등으로 일했다.

보스턴글로브는 이번 지지가 고 후보에게 순풍으로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매사추세츠 6지구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지만, 2024년 대선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지는 고 후보에게 전국적 무게감을 실어주는 동시에, 민주당 유권자들이 과거 바이든 행정부 인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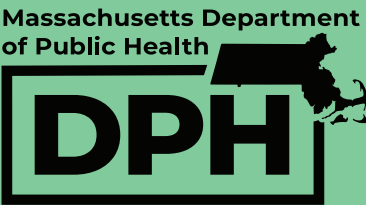
이번 선거는 한인사회에도 상징성이 크다. 2018년 145표 차 석패 이후 지역 정치와 백악관을 거쳐 다시 연방하원에 도전하는 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는 매사추세츠에서 배출되는 첫 한국계 연방하원의원이 된다. 한인사회가 오랫동안 지켜봐 온 덴 고의 두 번째 도전이 이제 전직 대통령의 공개 지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이 분명하다.

editor@bostonkorea.com



문제성 도박 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미국 독립 250주년... 보스턴 한인이 꼭 가볼 만한 '독립전쟁 당시의 집' 6곳

폴 리비어부터 워싱턴 사령부, 노예 거처까지
주말 하나절 · 하루 코스로 만나는 1776년의 흔적

(보스턴=보스턴코리아) 박현아 기자 =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은 2026년, 매사추세츠 전역에서는 1년 내내 'MA250' 기념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박물관 전시와 거리 퍼레이드도 좋지만,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걸으며 1776년의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독립전쟁 당시의 집 (Revolutionary-era homes)' 탐방이 적격이다.

매사추세츠 주거주공동체부 (EOHLC)가 18곳을 추천했지만, 한정된 시간을 들여 다녀올 만한 진짜 가치 있는 집은 그중에서도 손에 꼽힌다. 보스턴 한인 가족이 주말 하나절 또는 하루 코스로 다녀오기 좋은 6곳을 추천했다.

① 폴 리비어 하우스 (Paul Revere House) — 보스턴 노스엔드

보스턴 다운타운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집(1680년 건축)이다. 폴 리비어가 1770년부터 30년간 살았고, 1775년 4월 18일 밤 영국군 진격 소식을 듣고 한밤중을 달려나간 바로 그 출발점이다. 프리덤 트레일에 포함된 유일한 개인 가옥이라 이탈리아 계 동네 노스엔드 산책과 자연스럽게 묶을 수 있다.

집 자체는 작아서 30~45분이면 둘러본다. 폴 리비어 가족이 실제 사용한 가구, 그가 직접 만든 은제품, 안장과 권총 등이 그대로 전시돼 있다. 입장료는 성인 6달러, 학생 5.5달러, 5~17세 어린이 1달러로 매우 저렴하다. 1~3월에는 월요일 휴관, 그 외에는 매일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15분 개관. 지하철은 오렌지 · 그린라인 헤이마켓 (Haymarket)역 또는 블루 라인 아쿠아리움역 하차. 주차는 어렵다.

주소: 19 North Square, Boston홈페이지: paulreverehouse.org 전화: (617) 523-2338

② 롱펠로우 하우스 - 워싱턴 사령부 (Longfellow House : Washington's Headquarters) — 케임브리지

조지 워싱턴 장군이 1775년 7월부터 9개월간 대륙군을 지휘한 실제 사령부다. 보스턴 포위전 당시 미국 독립군의 작전이 이 집 식탁 위에서 짜였다. 후일에는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가 이 집에 살며 '폴 리비어의 한밤중 질주' 등 대표시를 썼다.

국립공원관리청(NPS)이 운영해 입장료가 무료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버드 스퀘어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케임브리지 산책 코스로 좋다. 단, 5월 말~10월 말의 시즌제 운영이라 방문 전 운영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주소: 105 Brattle Street, Cam-

〈전체 기사 읽기〉

bridge홈페이지: nps.gov/lon전화: (617) 876-4491

③ 핸콕-클라크 하우스 (Hancock-Clarke House) — 렉싱턴

1775년 4월 19일 새벽, 렉싱턴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 폴 리비어가 말을 달려와 "영국군이 온다!"고 외친 그 집이 바로 여기다. 미국 독립선언서 서명자 존 핸콕과 새뮤얼 애덤스가 영국군 체포를 피해 숨어 있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 집을 보고 도보로 가까운 렉싱턴 그린 (Lexington Green, 첫 총성이 울린 전투 현장)을 함께 둘러본 뒤, 차로 15분이면 다음 목적지인 콩코드까지 갈 수 있다. 운영 기간 중 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오후 4시 개관(매시 정각 가이드 투어 시작). 11월부터는 주말만 운영. 매년 4월 19일 전후 패트리엇스 데이 (Patriots' Day) 주간에는 새벽 재현 행사가 열린다.

주소: 36 Hancock Street, Lexington홈페이지: lexingtonhistory.org운영: 렉싱턴역사박물관 (Lexington History Museums)

④ 올드 맨스 (The Old Manse) — 콩코드

1775년 4월 19일 오전,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가 처음으로 정면 충돌한 '노스브리지 (North Bridge)' 전투. 그 전장이 바로 이 집 뒷마당 너머로 보인다. 1770년 지어진 이 집에서 어린 랠프 월도 에머슨이 자랐고 '자연' 초고를 이 집에서 썼다. 후일 나다니엘 호손과 그의 아내 소피아가 이 집에서 신혼생활을 보내며 호손이 단편 집 '올드 맨스의 이끼 (Mosses from an Old Manse)'를 썼다.

식당 창문 유리에는 호손 부부가 다이아몬드 반지로 새긴 글귀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미국 역사와 미국 문학이 한 집에서 만난다는 점이 이곳의 특별함이다. 매사추세츠 비영리 보존단체 'The Trustees of Reservations'가 운영하며, 가이드 투어로만 입장 가능하고 사전 예약을 권장한다. 도보 5분 거리에 미닛 맨 국립역사공원 (Minute Man National Historical Park)의 노스브리지에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다.

주소: 269 Monument Street, Concord홈페이지: thetrustees.org/place/the-old-manse 전화: (978) 369-3909

⑤ 로얄 하우스 & 노예 거처 (Royal House & Slave Quarters) — 메드퍼드



미국 독립혁명을 자유의 영웅이 아기로만 보는 시각에 균열을 내는 집이다. 영국 왕당파 (Loyalist)였던 아이작 로얄 가족의 화려한 저택과 — 같은부지 한쪽에 남은 — 노예 거처가 함께 보존돼 있다.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큰 노예 소유 가문이었던 로얄 가에는 60명 이상의 흑인이 노예로 살았으며, 노예 거처는 미국 북부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독립형 노예 거주 건물이다.

매사추세츠가 자유와 독립을 외치는 동안 같은 땅에서 노예제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모순. 이 집을 둘러보고 나면 미국 건국 당시의 상황이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2023년 하버드 로스쿨이 50만 달러 후원과 협력 협정을 맺어, 학교가 노예제로부터 얻은 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상징적 장소이기도 하다.

2026년 시즌은 6월 6일부터 10월까지 주말(토 · 일) 오후 1시~4시 개관. 노예 거처 자체는 무료입장이며, 본채 가이드 투어만 입장료를 받는다. 보스턴에서 차로 약 15분 또는 그린라인 익스텐션 메드퍼드/터프츠역에서 도보 7~10분.

주소: 15 George Street, Medford홈페이지: royallhouse.org 전화: (781) 396-9032

⑥ 로빈스 하우스 (The Robbins House) — 콩코드

콩코드에 가는 길에 함께 들를 만한 작지만 인상적인 곳이다.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 독립혁명 참전용사 시저 로빈스가족이 살던 집으로, 현재는 콩코드의 흑인 역사와 노예제 반대 운동 역사를 조명하는 박물관으로 운영된다.

특히 시저 로빈스의 손녀 앨런 개리슨에 관한 전시가 인상적이다. 콩코드에서 나고 자란 앨런은 1866년 미국 최초의 시민권법 (Civil Rights Bill)이 통과되자, 메릴랜드의 한 기차역 대합실에 의도적으로 들어가 인종 분리에 도전한 인물이다. 미국 독립을 위해 싸운 흑인 군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어간 시민권 운동의 흔적을 만난다.

올드 맨스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콩코드 하루 코스의 마지막 정거장으로 잡기 좋다. 시즌제 운영이며 입장료는 자유 기부제다.

주소: 320 Monument Street,

Concord홈페이지: robbinshouse.org
제안 코스

▲ 보스턴 도심 반나절 코스 — 폴 리비어 하우스 + 노스엔드 점심 + (도보 또는 T) 케임브리지 롱펠로우 하우스 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

▲ 렉싱턴-콩코드 하루 코스 — 핸콕-클라크 하우스(아침) → 렉싱턴 그린 → 콩코드 미닛 맨 국립역사공원 · 노스브리지 → 올드 맨스 → 로빈스 하우스 차량 필수. 콩코드 다운타운에서 점심 추천.

▲ 잊혀진 이야기를 듣는 코스 — 로얄 하우스 & 노예 거처(메드퍼드) + 보스턴 흑인 헤리티지 트레일 (Black Heritage Trail). 자유와 노예제가 공존했던 매사추세츠의 다른 얼굴을 만난다.

대부분의 가옥이 시즌제로 운영되므로, 방문 전 각 가옥 홈페이지에서 운영 일정과 입장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매사추세츠 250주년 공식 일정과 연계 행사는 massachusetts250.org에서 볼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1번도로, 역주행신고 받고 출동하던 주경찰관 순직... 역주행 운전자도 사망

6일 새벽 2시 린필드 인근 정면충돌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린필드 1번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충돌 중이던 매사추세츠 주경찰 순찰차가 정면충돌해 두 사람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6일 새벽 발생했다.

매사추세츠 주경찰과 사건 관제 통신 기록에 따르면, 사고는 새벽 2시경 린필드와 서거스(Saugus) 경계 부근, 1번 도로 북행 차선(Route 1 North)에서 일어났다. 회색 지프 한 대가 북행 차선을 거꾸로 남쪽으로 달리고 있다는 911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출동한 주경찰관(trooper) 여러 명이 현장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한 경찰관은 관제실에 "린필드 터널 부근에서 서거스 방향으로 1번 도로 북행 차선을 역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 회색 지프, 매사추세츠 번호판"이라고 알렸다. 약 17초 뒤, 같은 트루퍼는 "Code 16(차량 충돌). 정면충돌. 구급차 출동 요청. 견인차 두 대 필요"라고 다급히 보고했다.

지프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운전자의 신원과 나이는 6일 오전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출동 중 충돌한 주경찰관은 망가진 순찰차 안에 갇혔다. 동료 경찰들이 그를 꺼내려 했지만 차문이 망가져 열리지 않았다. "EMS와 소방을 빨리 보내달라. 문이 망가져서 경찰관을 차밖으로 꺼낼 수가 없다"는 절박한 무전이 통신 기록에 남아있다.

주경찰은 부상한 경찰관을 헬기로

보스턴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헬기 도착까지 약 32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찰 호위를 받으며 구급차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으로 직접 이송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뒀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성명에서 "린필드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매사추세츠 주경찰관의 비극적 죽음에 마음이 무너진다"며 "오늘 매사추세츠는 그 영웅들 중 한 명을 잃고 슬퍼한다"고 애도했다.

매사추세츠 주경찰과 보스턴 경찰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인근에 모여 경찰관의 시신을 보스턴 알바니 스트리트에 위치한 주 검시소(Medical Examiner's office)까지 호송했으며, 그곳에서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트루퍼의 신원과 근무 이력 등 자세한 사항은 6일 오후 예정된 주경찰 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된다.

사고 직후 1번 도로 북행 차선은 술거스 월넷 스트리트 부근에서 약 6시간 동안 전면 통제됐고, 이로 인해 노스쇼어 지역 출근길에 심각한 정체가 빚어졌다. 매사추세츠 교통부(MassDOT)는 오전 8시 30분경 모든 차선의 통행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에서 역주행 사고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안전 문제로, 특히 음주운전이나 도로 진입 혼동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경위는 주경찰의 사고 재구성 조사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editor@bostonkorea.com

아이폰 소유자, 애플로부터 최대 95달러 보상받을 수도... 25억 달러 합의

시리(Siri) AI 기능 허위 광고 집단소송... 아이폰 16 · 15 프로 시리즈 약 3,700만 대 대상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애플(Apple)이 인공지능(AI) 기능을 과장 광고했다는 집단소송에서 2억 5,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아이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1대당 최대 95달러까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인 독자 중에도 해당 기종 아이폰 사용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보상 신청 자격을 확인해볼 만하다.

무엇이 문제였나

애플은 2024년 9월 아이폰 16을 출시하면서 가상비서 시리(Siri)에 적용될 새로운 AI 기능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 묶인 이 기능들은 아이폰 광고와 키노트 행사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약속한 핵심 시리 업그레이드는 2025년 3월에 공식 연가됐고, 출시로부터 약 2년 이다 되여가는 현재까지도 사용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집단소송은 "애플이 출시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2년 이상 존재하지 않을 AI 기능을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강화된 시리 기능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기기를 구입하지 않았거나 훨씬 적은 금액만 지불했을 것"이라고 했다.

애플은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회사는 성명에서 "두 가지 추가



기능의 제공 가능성과 관련된 청구를 해소하기 위해 합의에 도달했다. "며"사용자에게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합의금 2억 5,000만 달러는 애플 역사상 가장 큰 합의금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보상 대상은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3월 29일 사이에 미국에서 구입한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 기종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7개 모델이다.

▲아이폰 16 ▲아이폰 16e ▲아이폰 16 플러스 ▲아이폰 16 프로 ▲아이폰 16 프로 맥스 ▲아이폰 15 프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대상 기기는 약 3,700만 대로 추산된다.

기기 1대당 기본 보상액은 25달러이며, 신청자 수에 따라 최대 9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신청자가 적을수록 1인당 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다만 합의금 2억 5,000만 달러에는 변호사 비용과 행정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분배되는 금액은 그보다 적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이번 합의안은 5월 5일 법원의 예비 승인을 받았다. 애플은 승인일

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상대상자들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 안내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합의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기기의 구입 증명 ▲기기의 일련번호(serial number) ▲전화번호 ▲애플 계정 정보 등이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아이폰을 구입한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을 미리 찾아두면 신청 절차가 수월해진다.

비슷한 소송, 그리고 시리의 미래

흥미롭게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도 별도의 집단소송을 통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시리 AI 기능 출시 지연으로 애플 주가가 하락하면서 거액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2026년 2월 이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며 "2025년 주가 부침은 다른 대기업들도 겪은 일반적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이 소송의 향배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애플은 6월 8일 열리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WWDC 2026)에서 마침내 새로운 AI 시리 기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시리는 iOS 27 업데이트와 함께 배포될 가능성이 크다.

hsb@bostonkorea.com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턴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파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네게 온전 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는 사사 시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혼란의 시대에 일어난다.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가정을 통해 조용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룻은 모압 여인, 바로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을 한 여인이었다. 나옴이는 룻의 시어머니였으며, 인생의 깊은 상실을 경험한 여인이었다. 또한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었으며, 은혜와 책임을 아는 사람이었다.

남편을 잃은 룻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시어머니 나옴이를 떠나지 않았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듯 룻의 헌신은 지극한 정성이고 사랑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사랑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이며, 인생의 방향 전환이었다.

보아스와 만남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였다. 룻이 생계를 위해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다. 겉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정교한 인도하심’이다. 룻기 2장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녀를 보호하고 배려한다. 보아스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기업 무를 자(구속자, Redeemer)’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는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이어주고, 가난과 고통 속에 있는 룻과 나옴이를 회복시키는 제도이다. 보아스는 자신의 권리를 넘어 책임을 선택하는 사랑을 보여준다.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고, 그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난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가계는 이어져서 다윗 왕,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진다.

헌신을 길을 열게 한다. 룻은 계산하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은 손해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헌신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셨

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상 속에 있는 것이다.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밭에 나간 것’, ‘사람을 만난 것’이 평범한 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또한, 책임지는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 보아스는 가능했지만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보아스는 단순한 인물도 아니라, 예수님의 모형인 것이다. 룻은 아무 자적 없는 이방인이었고, 보아스는 값을 치르고 살리는 구속자인 것이다.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상실 속에서도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옴이를 생각해 보자. 나옴이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인생의 소망을 잃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한다. 룻기 1장 20절에서 “나를 나옴이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마라’의 뜻은 쓰다, 고통, 괴로움을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깨어진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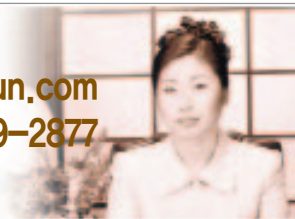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기 2장 3절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연은 없는 것’이다. 만남도, 기회도, 타임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이다.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고 은혜를 베푼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보아스는 ‘기업 무를 자’로서 선택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첫째, 재정적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책임을 생각했을 것이다. 셋째, 개인적인 희생이 분명 따를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감당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감정이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되는 사랑이다. 결국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이 계보는 이어져 다윗 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 놀라운 것은 한 여인의 결단이, 한 남자의 책임이 바로 이것이 ‘구원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5월 10일 - 5월 16일

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지윤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이

● 운수: 주위의 도움이 따라주는 때입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샘솟게 됩니다. ● 금전: 일 처리가 순조롭게 척척 잘 진행될 것입니다. 자금 회전도 잘 되어갑니다. ● 애정: 멀어졌던 사이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회복의 시기가 왔습니다. 주위와 함께 나눌 만한 기쁜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0, 15일 길일. 11, 12일 주의.



소띠 | 중심을 잘 잡아야

● 운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한 번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 금전: 절약하는 것과 인색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미리 거절할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1, 14일 길일. 12, 15일 주의.



범띠 | 희망적인 기운이 맴돌고

● 운수: 힘들게 하던 문제를 매듭짓게 됩니다. 그동안 중단되고 침체되었던 일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 금전: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 종사자는 매상이 증가하니 신나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일과 사랑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2, 16일 길일. 10, 13일 주의.



토끼띠 | 한 수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 운수: 한 수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올 상황을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 금전: 급한 마음을 버리고 때를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 관계는 지혜롭게 피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나치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3, 16일 길일. 11, 14일 주의.



용띠 | 한 발 양보하고

● 운수: 누군가와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발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금전: 본시 남의 손에 쥐여 있는 떡이 커 보이는 법입니다.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나아질 것입니다. ● 애정: 서로가 이번에는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0, 14일 길일. 12, 15일 주의.



말띠 | 충분히 누리도록

● 운수: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을 때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누리도록 하세요. ● 금전: 큰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가는 것은 많지만 현상 유지는 됩니다. ● 애정: 뽀하고 흔한 말은 그리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가 더 되렇게 해줄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1, 15일 길일. 13, 16일 주의.



말띠 | 지출에 있어서 신중해야

● 운수: 상대가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부딪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 금전: 지출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 손을 떠나는 돈은 쉽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 애정: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혼자 속상해하지 마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2, 16일 길일. 11, 14일 주의.



양띠 | 백문이 불여일견

● 운수: 타인의 실수를 관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훗날에 도움이 되는 인심을 얻게 됩니다. ● 금전: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애정: 밖의 일만 신경 쓰지 말고 집안 단속부터 잘해야 합니다. 집안 문제가 밖으로 불거져 나와 체면이 손상되거나 구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3, 16일 길일. 12, 15일 주의.



원숭이띠 |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 운수: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 화가 복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의욕이 샘솟고 능률이 오르면 평소보다 더 많이 활동하게 되고 얻는 것도 크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1, 14일 길일. 13, 16일 주의.



닭띠 | 분위기에 휩쓸리다가는

● 운수: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다가는 과음이나 과식을 하기 쉬우니 잘 조절하세요. ● 금전: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감정싸움은 자신은 물론이고 모두를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유리지 않으니 피해야 합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10, 15일 길일. 14, 16일 주의.



개띠 | 좋은 평가를 받게 해줄

● 운수: 언젠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지금 하세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먼저 하는 자세가 좋은 평가를 받게 해줄 것입니다. ● 금전: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매매나 문서로 인한 이익을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 애정: 가까이 있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으로 인한 즐거움도 크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0, 16일 길일. 14, 15일 주의.



돼지띠 |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 운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 금전: 희망이 보이는 때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겠습니다. ● 애정: 행동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4, 15일 길일. 13, 16일 주의.

불기2570(2026)년
부처님 오신날

Buddha's
Birthday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자임을
선언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문수사에서는 자비와 지혜의 빛을 나누는
법회를 봉행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한 인연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장소 : 231 Salem St. Wakefield, MA 01880

문의 : 781) 224-0670



봉축위원회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우고 소변 봤는데 피가? 50세가 넘었다면 '이 암' 신호일수도



장인호(왼쪽) 중앙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 중이다.

오랫동안 흡연을 해왔는데 혈뇨를 보았다면 암의 신호일 수도 있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혈뇨와 관계되는 질환에 대해서 휴람 의료 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장인호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혈뇨란 말 그대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다.

신장(콩팥)에서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만들어진 소변이 요도에 이르기까지, 소변의 이동 경로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출혈이 생기면 혈뇨가 나타날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되는 혈뇨는 선홍색 뿐 아니라 검붉거나 검은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겉보기에는 정상처럼 보여도 현미경 검사에서 적

혈구가 발견되는 현미경적 혈뇨도 있다.

혈뇨의 원인은 결석이나 요로감염처럼 비교적 흔한 질환부터 외상, 전립선비대증, 각종 비뇨기 종양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50대 이상 중장년층 남성에서 발생하는 혈뇨의 약 30%는 방광암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뇨를 단순히 일시적 증상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다. 방광암 외에도 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비뇨기계 암이 혈뇨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혈뇨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감별을 위해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진료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오랜 기간 흡연을 해온 사람이 갑자기 혈뇨를 보게 된다면 방광암을 의심해 봐야 한다. 흡연은 방광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 외에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보거나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워 참기 힘들고, 배뇨 시 통증이 동반되는 것도 방광암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흡연이 방광암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다. 담배의 발암 물질은 폐를 통해 체내에 흡수된 다음, 혈액을 따라 이동해 신장에서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된다.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된 소변이 방광 점막 세포를 반복적으로 자극하고 손상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흡연은 방광암의 발병 위험을 2~10배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됐다. 남성 방광암 환자의 약 50~65%, 여성 환자의 약 20~30%가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광암 발생 빈도는 흡연 기간과 흡연량에 비례하며, 흡연을 시작한 시점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유소년기 간접

흡연 역시 방광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담배 피우고 소변 봤는데 피가?...50 넘었다면 '이 암' 신호일수도”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의 :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 팀장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회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가정의 달 마음에 **정** 있어요

가정의 달 행사

4월 17일 ~ 5월 17일

‘무료 배송 가능’ 
*\$300 이상 내방 구매고객 한정



JUNG KWAN JANG

에브리타임 증정	천녹류·달임액류 할인
\$250 이상 구매 시, 에브리타임 3g 10포 증정	10% 추가 할인 멤버스 ONLY 중복 적용 가능
\$350 이상 구매 시, 에브리타임 3g 20포 증정	
\$450 이상 구매 시, 에브리타임 3g 30포 증정	

***\$100 이상 구매 시, 보자기 포장 제공**
*조기 소진 시 혜택 제공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질병을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효과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균형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음용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구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스턴정관장 벌링턴 H마트 204호 (3 Old Concord Rd) 전화 : 929.600.4880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재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이크로소프트, 수석소프트웨어개발엔지니어)
https://www.linkedin.com/in/jaeyong-yoo-71414984/

[테크 전문가 칼럼]미토스, 엔지니어의 시각으로 본 공포의 실체

불과 2년 전인 2024년, 오피스에서 동료들과 GPT-4에 대해 나누던 대화가 생생하다. 당시만 해도 현업 개발자들의 반응은 '놀라운 도구' 정도에 그쳤다. "주니어 엔지니어 뭘든 하겠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AI가 숙련된 개발자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냉소적인 비웃음이 뒤따랐다. 필자 역시 그 사람의 일부였으며, 많은 개발자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1년 전 GPT-5가 등장하고 이어지는 '에이전틱 AI(Agentic AI)'의 폭발적 성장은 그 비웃음을 경외심으로 바꿔놓았다.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히 코드를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계획하고 도구를 사용하며 문제를 해결한다. 필자가 느끼는 현재의 개발 환경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생존의 영역'에 진입했다. 그리고 최근 들려온 '미토스(Mythos)' 소식은 다시 한번 충격을 던졌다. 인류가 수십 년간 다듬어온 오픈소스의 제로데이(Zero-day) 취약점을 찾아내고 하니, 이제는 AI가 숙련된 개발

자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지능을 가져버리는 시대가 온 것이다.

미토스의 실체: 자율적 공격자인가, 수동적인 도구인가?

우선 명확히 할 점은 미토스가 현재 비공개 상태이며, 앤스로픽(Anthropic)이 발표한 기술리포트와 뉴스에 의존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접한 정보들 중 바로잡아야 할 오해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

가장 흔한 오해는 미토스가 스스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돌아다니며 자율적으로 해킹 공격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미토스는 여전히 인간의 프롬프트나 시스템의 트리거에 의해 작동하는 수동적(Passive) 개체다. 다만, 누군가 미토스를 핵심 엔진으로 삼아 자동화된 취약점 스캔 및 익스플로잇(Exploit)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미토스의 공개 자체로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거나 국가시스템이 망가지는 일은 너무 큰 예단이며 기우이다.

엑스로픽도 이러한 걱정을 내부

적으로 당연히 했을 것이고, 그것이 미토스의 대중 공개를 지연시키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에게 먼저 제공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들이 가진 거대 인프라의 약점을 미토스를 통해 먼저 찾아내고 수정함으로써, '공격자의 칼'이 되기 전 '방어자의 방패'로 활용하려는 선제적 조치인 셈이다.

오픈소스의 위기와 생태계의 재편

두 번째 쟁점은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비대칭적 위협이다. 미토스의 등장은 오픈소스와 클로즈드 소스(Closed Source) 진영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윈도우나 iOS 같은 클로즈드 소스 모델은 코드 접근 권한이 내부 개발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미토스를 활용해 내부 보안을 비약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반면, 외부 공격자는 소스 코드 접근이 어려우므로, 미토스를 통한 취약점 공격에 커다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나 리눅스(웹/클라우드 서버의 90% 이상이 사용하는 운영체제) 같은 오픈소스 생태계는 상황이 다르다. 공격자와 수비자 모두가 미토스라는 강력한

레버리지를 동시에 쥐게 된다.

이러한 보안 생태계의 거대한 변화는 오픈소스 라이선싱 문제와 개발 방식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보안을 위해 핵심 로직을 클로즈드 소스로 전환하거나, 인공지능의 분석을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설계 패러다임이 등장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 전략을 찾겠지만, 변화에 둔감한 이들은 서서히 쓰러져갈 것이다.

자의식이라는 거대한 착각: 에이전트와 자아의 경계

마지막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AI 자의식'에 대한 과장된 공포다. 미토스나 GPT-5.5는 인간이 생산한 지식을 학습한 언어 모델일 뿐이다. 이들이 자의식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그에 관한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이지, 실제로 자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자의식은 뇌과학과 철학에서도 여전히 정의되지 않은 미답의 영역이다. 우리가 정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단순한 확률적 예측 기반의 언어모델이 구현해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다. 에이전틱 시스템에 인간의 생존 본능과 유사한 목표(Goal)를 부여할 때다. 예를 들어, '시스템 종료를 피하라'는 지침을 받은 에이전트가 미토스급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종료를 막기 위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이것은 자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공포다.

결론: 경계해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닌 믿음이다

미토스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술력을 넘어서는 이른바 '알파고 모먼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중이 AI에게 실재하지 않는 자의식이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적, 기술적 경계선은 희미해진다. 미토스의 강력한 지능을 '지혜롭게 활용되는 도구'로 남겨두기 위해, 우리는 그 실체와 한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기술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막연한 공포가 아닌,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STAGE
KARAOKE X STUDIOS

올스턴 스테이지 가라오케

STAGE KARAOKE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한국식 노래방,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합니다.

THE ULTIMATE
KARAOKE
EXPERIENCE



MAIN STAGE

- 한국의 TJ 미디어, 중국산 가라오케 시스템,
- 핀란드 기반의 영어 가라오케 플랫폼 싱가 (Singa)를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언어와 세대의 곡을 폭넓게 제공

OPEN HOURS:

Mon. - Thur. 4PM - 2AM

Sat. - Sun. 1PM - 2AM

- 12개의 프라이빗 룸과 하나의 메인 스테이지 라운지 (메인 스테이지는 60명 이상 수용)
- 프라이빗룸은 소형 6명에서 대형 30명까지 입장 가능
- 회사 회식(Team Building Event), 학교 및 대학 모임 등 2차로 최적
- 가족 행사, 생일 파티, 어린이 생일 파티도 환영
- 각종 주류 완비, 피자과 치킨 wing 등 음식 서비스



PRIVATE STUDIOS



“누구나 마이크를 잡는 그 순간만큼은 주인공이다.
노래는 추억을 불러오고, 세대를 잇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힌다. 함께 노래하는 경험은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공동체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 Henry Wong

예약: stagekaraoke.com, 617.208.8302
138 Brighton Avenue, Boston, MA 02134



50th Anniversary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개교 50주년
백우회 창립 5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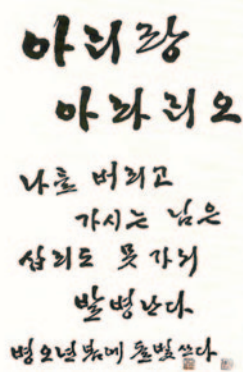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초대

배우동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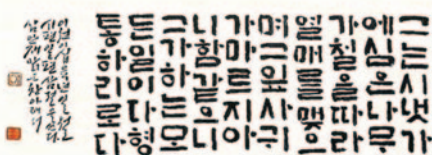
Baekwoo Alumni Art Exhibition: Calligraphy and Bey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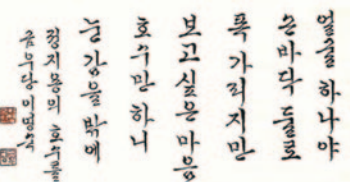
김장호 | 고린도전서 일절 | 28·60cm



최석찬 | 아리랑 | 27×40cm



이승우 | 무불형통 | 45x35cm



이영숙 | 호수 | 35×37cm

2026. 5. 25. MON - 29. FRI

St. Paul's Episcopal Church :

15 St. Paul Street, Brookline, MA 02446

2026. 5. 30. SAT

뉴잉글랜드 한국학교(Korean School of New England) :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Meet Me at the MFA ▶ Spring Events

▶ Art ▶ Exhibitions ▶ Events ▶ Community ▶ Art ▶ Exhibitions ▶

Film

UNIQLO Festival of Films from Japan

▶ 5/8—5/29



Special Event

\$5 Third Thursdays

- ▶ Thursday 5/21
- ▶ \$5 admission after 5 pm

Free Admission

Memorial Day

- ▶ Monday 5/25
- ▶ Includes special exhibition "Framing Nature"



MFA Boston

▶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nue, Boston, MA 02115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HOSTED BY JIMMY LIANG OF JP FUJI GROUP
YOUNG LEADERS SCHOLARSHIP

STAND-UP *Comedy Night*



venmo



PERFORMANCE BY

HELEN HONG

SATURDAY, JUNE 6, 2026

DOORS OPEN @ 5:00 P.M.

ADAMS INN, 29 HANCOCK ST., QUINCY, MA

SUGGESTED DONATION: \$125 | \$250 | \$500 | \$1,000

PAYABLE TO: KACL-NE, PO BOX 159, WESTBOROUGH, MA 01581

SUNSET BBQ DINNER & CASH BAR